

Exhibition

23 June, 2016



(유명한 무명 wellknown unknown)

▶ EXHIBITION

심함적 태도와 폭넓은 상상력으로 무장한 한국 동시대 미술가들의 그룹전 (유명한 무명 wellknown unknown)이 열린다. 2013년부터 재능 넘치는 젊은 작가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정리해온 국제갤러리가 마련한 기획 전시로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배리핑크, 오민, 이윤이, 타가 참여한다. 큐레이터 김성원이 기획을 맡은 이번 전시에서는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2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에게 출현과 소멸, 등장과 은둔, 유명과 무명의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전공과 경향이 서로 다른 7명(팀) 작가들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 흥미를 끈다. 전시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문의 02-735-8449
이유진갤러리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진작가 최영진의 사진전 〈The Lost Sea〉를 개최한다.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의 갯벌과 해수욕장, 섬 등을 찍는 프로젝트를 이십여 년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작가의 열세 번째 개인전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작업한 심어 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오랜 세월 갯벌이었고 바다였지만 간척 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땅이 되어버린 '사라져버린 풍경'들을 통해 이미지 너머의 상징과 무한한 숭고함을 들여다보게 된다. 대자연과 인간의 삶, 그리고 현대미술에서 사진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다. 문의 02-542-4964